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135-985, KOREA
Phone : 82-2-3210-2480~3 Fax : 82-2-3210-2488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 첫 한국인 대표이사 브리지스톤 차이나 아시아 퍼시픽 조직개편 단행

-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영업총괄 김현영 이사 승진 발령
-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 첫 한국인 대표이사
- 브리지스톤 차이나 아시아 퍼시픽, 한국-싱가포르-아시아 신흥시장 사업 총괄하는 조직 신설(KSAEM: Korea Singapore ASEAN Emerging Market)
- 신설된 KSAEM 총괄 대표에 요시다 켄스케 현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 대표이사 승진 발령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135-985, KOREA
Phone : 82-2-3210-2480~3 Fax : 82-2-3210-2488

세계 최대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의 한국 판매법인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www.bridgestone-korea.co.kr, 이하 브리지스톤 코리아)에 첫 한국인 대표이사가 탄생했다.

브리지스톤의 중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법인인 '브리지스톤 차이나 아시아 퍼시픽(대표이사: 요시카즈 시다)'은 한국, 싱가포르, 아시아 신흥시장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 KSAEM(Korea Singapore ASEAN Emerging Market)을 신설하고, KSAEM 의 총괄 대표에 요시다 켄스케 브리지스톤 코리아 대표이사를 승진 발령했다. 요시다 켄스케 KSAEM 총괄대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게 된다.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에는 브리지스톤 코리아 영업총괄 김헌영 이사가 승진 발령됐다. 한국인이 브리지스톤 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기는 법인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김헌영(金憲永, 49 세) 신임 대표이사는 2003년 브리지스톤 코리아에 합류한 이후, 승용차용 타이어 및 트럭/버스용 타이어 영업부문, 마케팅, 경영기획 분야를 두루 거치며 브리지스톤 코리아의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김헌영 신임 대표이사는 "브리지스톤 코리아 법인이 설립된 이래 첫 한국인 대표이사의 영광을 갖게돼 기쁩니다. 한국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지만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브리지스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능 중심의 기존 제품 라인업에 더해 일반 범용, 친환경 타이어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딜러, 협력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해 모두가 공동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브리지스톤 차이나 아시아 퍼시픽의 요시카즈 시다 대표이사는 "한국은 세계 상위 수준의 자동차 산업을 갖춘 나라로, 국내 브랜드들이 주도하는 타이어 산업도 발달해 있는 시장이다. 한국은 잠재력이 큰 나라다. 브리지스톤 코리아 대표이사로 한국시장을 경험한 요시다 켄스케 KSAEM 총괄대표와 김헌영 브리지스톤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투톱의 하모니를 기대한다"라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135-985, KOREA
Phone : 82-2-3210-2480~3 Fax : 82-2-3210-2488

###

브리지스톤에 대해

브리지스톤은 세계 최대의 타이어 기업으로, 2008년 타이어 매출 기준 281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 1달러=1,131원, 2017.09.11 환율기준)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10년 연속 전세계 타이어 랭킹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출처: 미국 Tire Business誌). 브리지스톤은 약 140,000명의 직원이 본사를 포함해 전세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150여 개국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올림픽 파트너(The Olympic Partner)' 계약을 2014년 체결해, 2024년 올림픽까지 '올림픽 톱 파트너(TOP Partner)'로 활동한다. 브리지스톤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맺은 올림픽 파트너십에는 브리지스톤이 생산하는 타이어, 내진 분리 베어링, 비전동 자전거의 올림픽 후원도 포함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올림픽 파트너십을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는 브리지스톤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알리는 소통의 기회와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 있는 브리지스톤의 노력을 한데 모아 브리지스톤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올림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